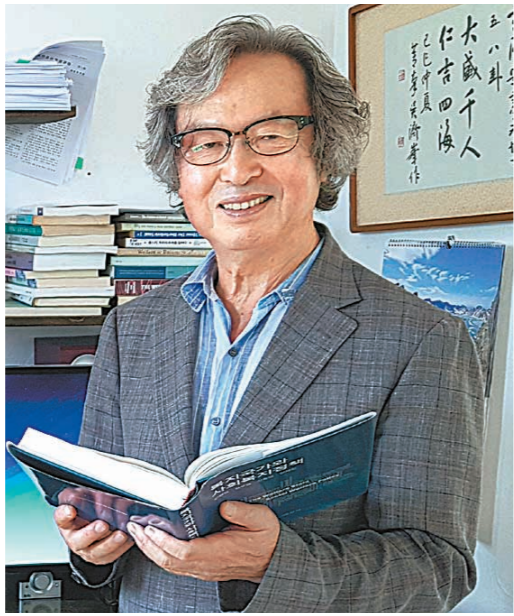


“성장 뒷받침된 복지로 가야 무리 없어”

‘복지국가와 사회복지’ 책 펴낸
盧정부 교육부총리 안병영 교수



강원 고성군에서 농사를 짓는 안병영 연세대 명예교수는 농하기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다고 했다. 안 교수는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의 선순환 구조를 지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병영 교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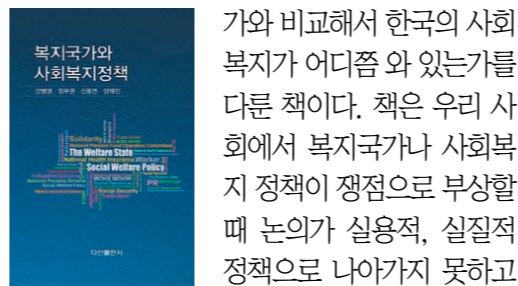
“우리 사회는 경제 발전 정도에 비해 복지 수준이 뒤져 있는 편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경제 형편이 어려운 계층의 소득 보장에 힘쓰면서 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복지정책을 펴서 노동의 부가가치를 올려야 합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노무현 정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겸 부총리로 일했던 안병영 연세대 명예교수(77)가 제자인 정무권(연세대) 신동면(경희대) 양재진 교수(연세대)와 함께 연구서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다산출판사·사진)을 최근 냈다. 강원 고성군에서 농사와 연구를 병행하고 있는 그를 4일 전화로 만났다.

안 교수는 최근 이슈가 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지금은 ‘저부담 중급여’지만 앞으로 ‘중부담 중급여’로 가야 한다”며 “받는 수준은 지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이 무게를 싣고 있다. 안 교수는 “연금개혁은 인기가 없는 정책이다. 서구에서도 많은 정부가 다음으로 미루고자 했고, 쉽게 개혁에 성공한 나라는 없다. 시간을 끌다가 시기를 놓친 나라도 많다”며 “그러나 어느 정부인가는 반드시 해야 하고, 빠른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책에서 앞으로 복지 급여뿐 아니



가 비교해서 한국의 사회복지가 어디쯤 와 있는가를 다른 책이다. 책은 우리 사회에서 복지국가나 사회복지 정책이 쟁점으로 부상할 때 논의가 실용적, 실질적 정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함께 탄탄한 소득 보장 제도를 확립하고, 시민들이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게 성인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안 교수는 “그러나 국민 합의도 없이, 좌우파의 고정된 이념에 따라 방향이 정해지면 정책적인 뒷받침을 못한 채 허둥댄다”고 비판했다.

“영미식 신자유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나 우파는 복지가 독이 된다며 효율성만 강조합니다. 반대로 옛 유럽의 사회주의 나라나 좌파는 경제 발전이 복지를 전인하는 건 생각지 않고 ‘복지 급여’를 통한 평등의 실현에만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요. 양쪽 다 무리한 생각입니다.”

안 교수는 한국 사회가 ‘사회투자적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투자적 복지국가란 인적 자원 투자를 계속해 성장과 고용을 유지하면서, 적정 수준의 소득 보장을 통해 구성원의 삶을 안정시키는 걸 병행하는 구조를 일컫는다.

그는 “블레이 전 영국 총리의 ‘제3의 길’이나, 슈뢰더 전 독일 총리의 신중도 노선처럼 적절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종업 기자 jjo@donga.com

우리사회 복지수준 높여야 하지만 이념에 얽매이면 정책 허둥대

‘사회투자적 복지국가’로 가야

라 사회 서비스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노인·영유아 돌봄 서비스와 같은 것을 말한다. 안 교수는 “한국의 복지는 소득 보장 측면에서는 일정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데, 사회 서비스는 뒤쳐져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국가와...’는 역사적 측면에서, 다른 국

“카메룬 어린 천사들 만나 나눔의 행복 배웠죠”

가수 양동근, 구호단체와 현지 방문
아이들에게 축구용품 선물
국내대회 참가 방향엔 관광 안내



양동근 씨가 올 7월 카메룬 응가운데레 지역을 방문했을 때 아이들과 찍은 휴대전화 사진을 들어 보이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꿈에서나 볼 수 있는 천사같은 아이들이었죠.”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난 배우 겸 가수 양동근 씨(39)는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만난 아이들이 해맑고 순수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7월 12~18일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회장 유원식)과 함께 카메룬 북동쪽 응가운데레 지역을 방문했다. 이달 11~15일 경기 과천시 관문체육공원에서 열리는 ‘호프(hope·희망)컵’ 축구대회에 참가하는 아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다. 호프컵은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몽골 멕시코 등 10개국 120명의 ‘기아대책’과 결연을 맺은 아동이 참가하는 행사다.

처음엔 양 씨를 낯설어하던 아이들은 이틀 만에 ‘툰툰(Tonton·카메룬어로 ‘삼촌’이라는 뜻) DG(동근의 이니셜)’라 부르며 친해졌다. 양 씨는 아이들과 춤을 추고 축구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양 씨는 아이들이 축구 용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유니폼과 양말,

축구화, 공 등을 준비해 갔다. 아이들은 선물을 받아 경중경중 뛰며 기뻐했다고 양 씨는 말했다.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서로 나누고 사는 게 행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양 씨는 외국은 처음으로 한국에 어떻게 온 아이들을 물놀이공원에 데려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는 “기회가 되면 카메룬을 다시 찾은 생각”이라며 “응가운데레 아이들을 보며 나 자신 세 아이의 아빠로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며 활짝 웃었다.

향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donga.com에서 동영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려대 의과대학 90주년 기념식 개최 4일 오후 고려대 의대 본관 유광사홀에서 열린 ‘고려대 의대 90주년 기념식’에서 영제호 고려대 총장과 박영식 고려중앙학원 상임이사 등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기형 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나훈균 고려대 의대 교수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고려대 의료원 제공

명복을 빙니다 프로레슬러 이왕표

드롭킥으로 세계 호령 ‘영원한 챔피언’

김일 제자로 1600여 차례 링 올라
5년전 암수술 후 레슬링 부흥 힘써
‘개그맨 이동우에 눈 기증’ 유언



를 지냈다. 고인은 프로레슬링이 각본대로 움직인다는 ‘가짜’ 논란에 대해 “나의 프로레슬링은 쇼가 아닌 진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2013년 담도암으로 쓰러졌지만 세 차례 수술 끝에 병상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최근 암이 재발했다.

프로레슬러 이왕표 씨(사진)가 4일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향년 64세.

1954년 충남 천안에서 태어난 고인은 ‘박치기왕’ 김일의 1기 제자로 1975년 프로레슬링에 데뷔했다. 190cm의 거구였던 그는 표범이 그려진 태권도복 차림으로 등장에 호쾌한 돌러치기와 드롭킥을 구사하며 ‘나는 표범’으로도 불렸다.

고인은 1980년대 중반 이후 프로레슬링의 인기가 떨어져 계보를 이을 선수마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프로레슬링의 부흥을 위해 힘썼다. 1993년 세계레슬링연맹(WWF) 헤비급 챔피언에 등극한 그는 50대 이후에도 링에 올라 1600차례 경기에 나섰다. 한국프로레슬링연맹 대표

그가 5년 전 암 투병 중 공개한 유서에는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시력을 잃은 개그맨 이동우에게 자신의 눈을 기증하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동우의 질환이 망막 이식으로도 시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병으로 알려져 고인의 눈이 실제로 기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8일 오전 8시, 장지는 경기 고양시 일산 청야공원. 02-3010-2261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부고

설치미술가 전수천씨

이탈리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처음 특별상을 받은 전수천 설치미술가(사진)가 4일 별세했다. 향년 71세. 고인은 지난해 12월 런던의 주영 한국문화원에서 전시를 준비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투병했다. 전북 정읍시 출신인 고인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개교한 1993년부터 2011년까지 미술원 교수를 지냈고 2003년 대안예술학교 ‘비닐하우스 에이에이(AA)’를 세워 후학을 양성했다. 유족으로 부인 한미경 씨가 있다. 빈소는 전북대병원. 발인은 6일 오전 8시. 063-250-2452



◇김귀열 씨 별세·영 영섭 영란 미나 혜영 씨 부친상·서순열 동아프린테크 과장 차종관 윤영대 한호 씨 장인상=3일 광주 신세계장례식장. 발인 6일 오전 10시 070-5096-7443
◇김성자(본명 김가짜) 씨 별세·최홍수 씨

김이수 헌법재판관, 전남대 석좌교수로

전남대는 19일 퇴임할 예정인 김이수 헌법재판소 재판관(65·사법연수원 9기·사진)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초빙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재판관은 올 11월 석좌교수로 부임할 예정이다. 전북 고창 출신인 김 재판관은 강단에 서서 헌신하고 싶다는 뜻을 직접 전남대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우 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취임

이기우 인천재능대 총장(사진)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8대 회장으로 5일 취임한다.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및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을 지낸 이 회장은 앞서 협의회회 14, 15대 회장 및 17대 회장을 맡아 이번이 세 번째 연임이다.



‘뽕과 물’ 배수아, ‘오늘의 작가상’ 수상

소설 ‘뽕과 물’을 쓴 배수아 작가(53·사진)가 2018년 ‘제42회 오늘의 작가상’ 수상자로 4일 선정됐다. 상을 주관하는 민음사는 “그의 작품은 우리 시대 여성 서사 상상력의 폭을 확장했다”고 밝혔다. 상금은 2000만 원. 시상식은 내년 초 열린다.



이병주국제문학상 대상 구효서씨

제11회 이병주국제문학상 대상 수상자로 구효서 소설가(61)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경남 하동군 이병주문학관에서 30일 오후 5시 열린다. 상금은 1000만 원.

라운지

◇한반도선진화재단은 6일 오후 2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 12주년 기념식을 열고 새 대표로 박수영 전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공식 선임한다.

‘핫뉴스’ 언제 어디서나 동아일보 앱으로 즐기세요
m.donga.com



채널A 서포터스 10기 발대식 ‘채널A 서포터스’ 제10기 발대식이 4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렸다. 이번에 선발된 서포터스는 영상 전문가들이 많으며 이 가운데는 클레이 아티스트, 캘리그래퍼도 있다. 이들은 내년 2월까지 다채로운 영상 콘텐츠를 통해 채널A 프로그램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양희성 기자 yohan@donga.com

인사

코바코 사장 김기만씨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에 김기만 전 게임물등급위원회장(64·사진)을 임명했다. 동아일보 파리 특파원을 거친 김 사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회의장 공보수석과 초대 게임물등급위원장을 맡았다. 임기는 3년이다.



◇새만금개발청(승진) ▽4급 △운영지원과 김용태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실 최용균 △투자전략국 교류협력과 이범 △개발사업국 사업관리총괄과 소병철

◇연세대 △글로벌인재대학장 조용수 △글로벌사회공헌원 명예원장 반기문 △인권센터장 장해석 △학생지원실장 이삼현 △의료원 원목실장 겸 교목실장 정종훈 △연세춘추주간 임재호 △박물관장 조대섭 △청년문화위원장 이상국 △김대중도서관장 박명림 △알렌관장 함선욱 △동서문제연구원장 박용석 △언어정보 △이석재 △인문학 △정명교 △법학 △심영 △교육연구 소장 서영석 △나노과학기술 △이우영 △바르텐 CT △김병수 △과학영재교육원장 이원태 △이과대학 교학부학장 이지현 △사회과학대학 언론홍보영상학부장 김용찬 △교육과학대학 부학장 서상훈 △학부대학 RC부학장 겸 RC교육원장 전광민 △교육대학원 부원장 홍원표 △행정대학원 △홍순만 △원주청탁방지부담담당관 김동운 △원주교수학습센터장 신상범 △원주창업지원단장 김택중 △연세매지방송국주간